상상인 증권

2022. 05. 16

전략/시황

김장열
jay.kim1007@gmail.com
02-3779-3531

런닝맨 Briefing

주말에 들어가며 나오며 (주요기사 코멘트)

13일 (금요일) 오후~15일 (일요일) 12시 현재 주요기사 코멘트

긍정적

Samsung in Talks to Hike Chipmaking Prices by Up to 20%
(Bloomberg, 삼성 칩 제조 가격 최대 20% 인상 협상)
: 증가하는 재료비와 물류비를 충당하기 위해 업계 전반의 (TMSC등) 가격 인상 추진에 동참한다. 15~20% 인상 가능성 제기. 메모리가 아니고 파운드리 제품. Legacy제품 (첨단공정 반대말) 가격은 더 오를 것. 하반기부터 적용, 일부 고객사들과 협상을 마쳤으며 다른 고객사들과 아직 협의 중이라고 보도. 삼성전자도 긍정적, DB하이텍에는 더 긍정적

마이크론CEO "개인용 PC시장 침체에도 기업·데스크톱 PC시장은 여전히 건실한 시장"
: (CNBC) 마이크론 CEO는 "개인용 PC시장이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침체를 겪고 있지만 기업용과 데스크톱 PC시장은 여전히 건실하다. 개인용 시장은 최근에는 과거 같은 성장속도를 내지 못하지만, 이것이 무언가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"라고 밝혔다. 4월 개인용 PC출하량은 YoY -7.3%, 21년 YoY +15%.. 메모리 기업 주가 하락 추가 폭락 멈추게 할 안도성 코멘트

평양 주재 중국 특파원 "식량 1주일치 남았다"…中 "국민 지킬 것"
: 지정학 (정치적) 리스크 잠시나마 소강 가능성

부정적

세계 밀 생산 2위 인도, 밀 수출 금지
: (로이터 등 다수 매체) 인도는 13일 즉각적으로 밀 수출 금지 정책 발표. "식량 안보 확보하고 이웃국가와 기타 취약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 수출 정책을 '자유'에서 '금지'로 변경한. 인도는 초고기온 47도까지 치솟는 등 121년만이 폭염. 세계 홀해 밀생산은 YoY -4.4% 예상 (감소는 18년 이후 4년만에 처음). 미국도 50개주중 반 이상이 심각한 가뭄, 캐나다는 파종 지연. 프랑스는 강수량이 32년만에 최저치로 밀 출하량 급감 전망. 중국도 YoY-3% 추정.

中 전문가 "'제로 코로나'에 지친 외국기업 철수 대응해야" –
: 12일 주중 독일 상공회의소 설문결과, 460개 기업 중 외국인 직원 28%가 코로나 정책 탓에 계약 만료 전이나 직후 중국 떠날 계획.

코로나 탓에 해외 여행 전면 금지?...中 당국 사실상 여권 발급 중단

중립적
푸틴, 전화 건 핀란드 대통령에 "나토 가입은 실수"
: 74년만에 중립국 지위 버리는 것. 6월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 상정. 통상 4~6개월 소요기간 (나토 개별국가 비준 받아야 함) 필요 감안 연내 가입될 듯. 스웨덴도 16일 신청 예정 보도. 러시아-우크라이나 종전이후에도 신냉전 시대라는 증가

러 "우크라, EU 가입 용납 못 해"... 'NATO 가입만 반대' 입장 바꿔

[우크라 침공] 푸틴 혈액암 등 건강이상설 증폭...아이스하키 경기도 불참
:익명의 러시아 올리가르히-> 미국 벤처 투자자 통화. 몸과 마음 (정신) 둘 다 중요함

배달 주문이 뚝 끊겼다... "체감상 3분의 1 수준" -
: 대신 남성복 로가디스의 재킷/팬츠 세트 상품 YoY +45%. 4월 18일~2주간 롯데백화점 +23.4%, 신세계백화점 +30.4%. 4월 29일~5월 10일, 롯데백화점 색조화장품 +35%

'진퇴양난' 한전...역대급 적자에도 전기료 인상은 '난망'
:21년 5.8조 적자, 22년 1분기 7.8조 적자. 타 산업의 수혜= 한전 (일반주주)의 아픔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김장열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(비중확대)			
		Neutral (중립)			
		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투자등급 4 단계	단기 주가 상승		3.81%	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
		중장기 주가 상승		53.02%	
		단기 주가 하락		0.32%	
		단기 주가 박스권		4.76%	
		Attention		38.10%	
		합계		100.0%	